

“노력없이 결과가 없다”

도서관대회가 끝나자마자 타임머신을 타고 30년 전으로 돌아가 본다. 낡은 책장에 담겨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 우리 도서관계의 일상들에서 다정함을 느낀다. 창 밖으로 맑은 햇살이 따스하다. 추억의 여정으로 떠나는 나그네의 발길을 축복하는 듯.

10월 25일과 26일, 2일간 일정으로 1974년도 추계 공공도서관 세미나가 대구시립도서관에서 열렸다. 이 세미나는 공공도서관협의회가 매년 개최하는 중요한 사업의 하나로 이날은 문교부 장학실장을 비롯해서 사회교육국장 등의 관계 인사와 공공도서관 사서들이 다수 참석했다고 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박재일 문교부 사회교육국장이 “사회개발과 공공도서관”에 대해서, 조창환 경북학생도서관장이 “독서의 생활화와 공공도서관”에 대해, 안상열 대구시립도서관 직원이 “공공도서관에서의 향토자료실 운영”을 주제로 각각 발표하였다. 이 중에서 정책

담당부서인 문교부 사회교육국장이 발표한 내용이 주목을 끌었던 것 같다. 《도협월보》 10월호 소식에서는 박 국장의 발표내용을 자세히 적어 두었다. 우선 박 국장은 사회개발의 목표는 ‘국민의식 구조의 개선’ ‘발전적 인력개발’ 등에 있는데 ‘공공도서관의 기능은 바로 사회발전에 있는 것’ 이라고 규정하였으나,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은 사회개발을 담당할 만큼 준비되어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고 진단하였다. 그러면서 그 동안 정부의 도서관 정책이 ‘수량만의 증가를 도모하였는데, 이제 일단 중간평가를 받아야 하며 지금까지 증가되어 왔던 공공도서관의 내용적 충실이 보다 절실한 과제’ 라고 역설했다고 한다.(개인적으로는 이러한 지적은 지난 30년 내내 우리 정부의 도서관 정책의 기초가 되었어야 했다고 생각한다. 물론 실제로는 그러한 중간평가나 내용 충실 노력이 충분한 것 같지는 않다. 지금까지도 우리는 도서관의 수적 증가를 가장 기본적인 정책과제로 제시해야 하는 수준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러면서 박 국장은 당면한 과제로 ‘공공도서관

을 사회발전의 핵심적 요소로서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들고, 그렇게 된 내적요인과 외적요인을 최대한 합리적으로 해결하여 공공도서관이 사회개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공공도서관의 사회개발로의 지향점으로써 '내외적 요인의 상호개선을 기하고 영국 등 선진국과 같이 국민의 필요에 의해서 스스로 공공도서관을 만들어 가도록 민간주도형으로 방향 전환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교부의 인식을 바탕으로 당시 세미나에서 문교당국은 '지역사회 개발과 주민들의 정신적 근대화를 촉진하는 모체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공공도서관의 장기적 육성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를 위해 내년(1975년)부터 시범도서관을 지정, 국립중앙도서관 장서의 지방대여와 국고 및 지방재정 교부금으로 도서구입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 눈길을 끄는 대책은 국립중앙도서관 장서의 지방대여이다. 실제 그런 일이 1975년부터 있었을까? 1975년에 발행된 《도협월보》 각호 소식에서는 시범도서관 선정과 관련한 소식은 없었다. 그리고 1984년 국립중앙도서관 개관 60주년(당시에는 1983년이 60주년이라고 했으나, 그 후 개관일 산정기준이 변경되어 올해가 59주년이다)을 기념해서 발행된 논문집 『變化하는 社會에 있어서의 國立中央圖書館의 機能과 責任』에 실린 장일세 씨의 "國立中央圖書館의 機能"이라는 논문에서 국립중앙도서관에 요망되는 기능으로 '도서관 상호대차'를 제안하는 내용에서도 국립중앙도서관이 이전에 다른 도서관과의 상호대차와 같은 일이 있었다는 내용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아, 당시 문교부의 계획이 실행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세미나에서 제기된 우리나라 공

공도서관의 문제점과 대안은 지금 보아도 적절하고 유효한 것이 적지 않다고 생각된다. 과연 어떻게 해야 우리나라 도서관들이 국가와 사회 발전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 그것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은 과제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경북도서관학회는 10월 12일 대구시립도서관 시청각실에서 경북지구 도서관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학술발표회를 열었다. 4월 20일 창립된 학회가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날 학술발표회에서는 "지역사회를 위한 정보봉사에 관한 연구"(김남석), "학교도서관의 법적, 행정상의 문제점"(김정소), "책판의 판각빈도로 본 임란이전 지방문화사정의 분석적 고찰"(김치우), "시설중심 사회교육에 대한 일고찰"(최달현) 등 4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다양한 관심을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 이 같은 자발적인 연구와 실천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때의 학술발표회는 중요성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지금과 같이 지방분권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서관들도 이제 자기 지역에서의 정체성 확보와 지역 상황과 요구에 기반한 서비스 개발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지역단위로 다양하고 활발한 활동이 요청된다.

이 달에는 특별히 기억할 만한 도서관 개관 소식이 있다. 한국노동도서관이 10월 1일 새로 개관했다는 것이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 경기도협의회에서 설립한 국내외 노동관계 도서를 소장하고, 노동조합원들에게 봉사하는 것을 기

본 목적으로 한 도서관이다. 이러한 도서관이 확대되었다는 것은 도서관이 좀 더 다양한 지점에서 국민들에게 접근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고 생각한다. 이 도서관은 당시 국내에는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부설 도서관 등이 있기는 했지만 이 같은 연구도서관과는 달리 순수한 노동도서관으로서의 최초라고 기록되어 있다. 《도협월보》 소식에서는 이 도서관 신설 개관에 대해 “도서관 봉사의 대중화를 강조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이와 같은 순수노동도서관의 출현은 도서관계 발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서 전체 도서관계에서는 이를 크게 환영하고 있으며 또한 그 역할에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 밖에 잘잘한 일상으로 기억할 만한 것으로는 우선 국립중앙도서관이 10월 15일 개관일을 맞이하여 간단한 기념식을 거행하고 모범공무원을 표창했다고 한다. 소식은 그 몇 줄로 개관일의 기쁨을 표현하고 있다. 또한 당시 하버드 대학교 엔칭도서관에서 사서로 근무하고 계시던 김성하 선생께서 협회를 방문했다는 소식도 남아 있다. 하버드 엔칭도서관에 대해서는 얼마 전 관련 책도 발간된 바 있는데, 아시아 관련 전문도서관으로 우리나라 자료도 많이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김성하 선생께서 우리나라를 방문한 목적은 한국관계 자료 수집을 위한 것으로 자료수집을 위해 각 도서관등을 방문하는 등 분주한 일정을 소화하셨다고 한다. 이 같은 사서들의 노력이 오늘날 엔칭도서관을 세계적인 도서관으로 성장시킨 것이라고 할 때, 그 열정과 함께 그러한 노력이 가능하도록 지원한 대학의 분위기도 부러울 따름이다. 9월 23일 국립공보관에서 시작된 제18회 전국도

서전시회의 부산 전시회가 10월 16일부터 22일까지 시민회관에서 개최되었다는 소식도 접할 수 있다. 이 소식을 되짚으면서 생각해 본 것은, 도서전시회는 도서관이 가장 많이 하는 행사의 범주이기도 하면서, 행사 그 자체가 아니라 그러한 행사를 통해 우리 사회에 중요한 결과물을 제공하는 노력의 결실로 자리매김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즉, 도서관이 자기 도서관의 장서를 분석하고 정리해서 이를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이를 목록으로 정리해서 사회에 제공하는 등의 노력의 과정으로 도서전시회를 활용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국립중앙도서관의 《도서관》 10월호 소식에서 “기대되는 백악관도서관회의 - 상원통과후 준비에 분주”라는 제목의 기사가 눈에 띄었다. 1973년 11월 미국 상원은 1976년에 ‘도서관 및 정보서비스에 관한 백악관 회의’ 소집과 관련한 주요한 입법을 통과시켰다고 한다. 이 법안에 따라 이 회의를 통해 모든 미국민들의 도서관에 대한 초점과 국민들이 그들 도서관으로부터 정보와 오락의 제공에 대한 기대와 권리에 대한 합의를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도서관및정보과학위원회(NCLIS: <http://www.nclis.gov/>)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한다. 이 백악관회의를 위해 각 주와 영토에서는 그들 주민의 도서관 발전계획과 그 봉사의 필요를 결정하는 자체적인 회의를 열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예산도 배정하였다. 이러한 논의방식은 매우 민주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논의과정을 거쳐 백악관회의에서는 도서관이용자의 요구, 도서관봉사의 문제들과 운영과 서비스에 있어서의 새로운 기술, 학술 및 연구도서관 문제, 지방 도서관의 자원과

서비스, 모든 도서관에 대한 재정지원, 우편할 인체와 도서관의 통계적·경제적 데이터, 효과적인 도서관 기획, 도서관과 타기관과의 상호협력관계 등등 광범위한 문제들이 논의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처럼 1970년부터 국가적으로 도서관과 정보 서비스 문제를 다루는 위원회를 두고, 국민들과의 토론과 합의를 기획하고 이끌어 온 것이 오늘날 미국 도서관의 현재를 만들어 낸 실질적인 힘이 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우리도 그와 유사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질적인 도서관 발전을 이끌어 가고자 했으나 아직 의도한 대로 현실을 만들어 가지 못하고 있다. 그런 때에 이 같은 소식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든다. 우리도 이같은 범 국가적인 회의들을 만들어 낼 수 있으면 좋겠다. 최근 우리들에게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고, 사회적인 주목도 받고 있음에도, 그 어느 한 국면에서도 제대로 된 논의구조를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반성해야 할 일이 아닐 수 없다.

《도서관》 10월호에는 신민부 당시 시립동대문도서관 사서관이 “무엇이 公共圖書館의 發展을 沮害하는가 - 그 自己反省”이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도서관 현실과 문제점에 대해 서술한 후에 마무리에 “노력없이 결과가 없다”는 초등학교(원 글에는 국민학교로 적혀있다) 교과서에 나오는 교훈을 되새기고 있다. 물론 노력해도 결과가 없는 경우도 간혹 있겠지만, 노력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결과도 얻을 수 없다는 점에서 상황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은 중요하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노력에 목마르다. 《도서관》은 ‘한국 도서관의 실정과 과제’를 특집주제로 삼아 신 사서관의 글 이외에도 특수

도서관(당시 특수도서관이라고 하면 오늘날 전문도서관을 말하는 것이다)과 대학도서관에 대한 장일세, 손정표 선생의 글도 수록하고 있다. 《國會圖書館報》는 특집으로 국가중앙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시설 문제를 다루었다. 《도협월보》는 사서의 전문성과 관련한 최성진, 김세익 선생의 글을 실고 있다. 지금 우리 협회가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연구위탁을 받아 ‘사서직제 개선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이 시점에 30년 전 사서직과 그 전문성에 대한 선배들의 고민이 어떠했는지 꼼꼼히 읽어볼 생각이다. 변화는 그냥 바람처럼 오는 것은 결코 아니리라, 우리의 땀과 눈물의 결과로 지속적으로 새로운 현실이 만들어진다고 할 때, 선배들이 남긴 고민의 흔적이 결코 빛바래 쓸모없이 되지는 않으리라 믿는다. 가을은 빨리도 깊어간다. 우리가 지금 이 단계에서 풀어나갈 우리들의 고민에 대한 해답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글 : 이용훈 협회 기획부장, blackmt@hifel.net]